

은 필기a

막차는 줌처럼 오지 않았다./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/ 흰 보라
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/ 톱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./ 그믐처럼 멎은 졸
고 /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/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/ 한 줌의 톱밥을
불빛 속에 던져주었다.

은 필기

막차는 줌처럼 오지 않았다./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/ 흰 보라
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/ 톱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./ 그믐처럼 멎은 졸
고 /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/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/ 한 줌의 톱밥을
불빛 속에 던져주었다.

은 디나루

막차는 줌처럼 오지 않았다./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/ 흰 보라
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/ 톱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./ 그믐처럼 멎은 졸
고 /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/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/ 한 줌의 톱밥을
불빛 속에 던져주었다.

막차는 줌처럼 오지 않았다./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/ 흰 보라
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/ 톱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./ 그믐처럼 멎은 졸
고 /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/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/ 한 줌의
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.